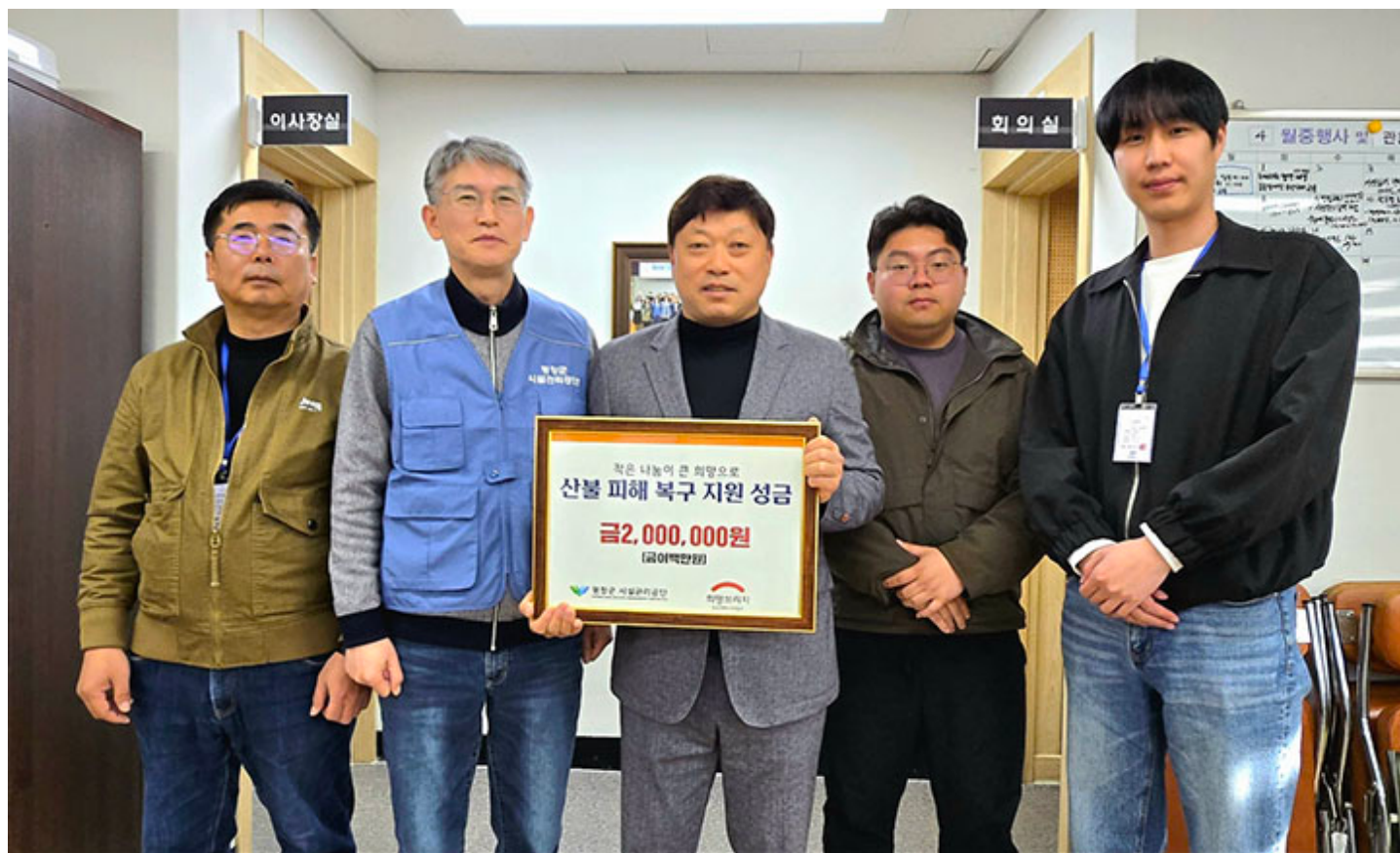


‘작은 정성 큰 희망으로’...평창군시설공단, 산불 피해복구 성금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5.04.16 11:28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부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최근 경북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복구 성금 200만 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성금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공단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

전달된 성금은 희망브리지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긴급 구호 물품 지원, 주거 복구, 생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2022년 옥계면 산불 피해, 지난해 충북 호우 피해 성금 기탁을 비롯해 2023년 완도·통영 식수 지원, 여성·청소년에 위생용품 기부 등 재난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다.

최순철 이사장은 “산불로 피해를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